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보도자료
(제26-xx호)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11.24(화) 배포 2026.11.24(화)

한국어 교육에서 한국유학까지 한자리에,

LA한국교육원 등 미국 내 8개 한국교육원,
2026년 ACTFL 연례 콘퍼런스에서 통합 「한국관」 성공적 운영

- 미국 내 8개 한국교육원 공동 부스 운영, 사흘간 약 300명 방문·상담
- 한국어 교육 관련 12개 기관이 참여한 통합 「Korea Pavilion」에 약 1,500명 방문
- 한국어 교육부터 한국유학·한국문화까지 원스톱 정보 제공으로 한국어 교육 수요 확인 및 국제 협력 기반 확대

□ 로스앤젤레스(이하 'LA') 한국교육원(원장 이병승)을 비롯한 미국 내 8개 한국교육원*은 2026년 11월 20일(금)부터 22일(일)까지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서 열린 2026 전미외국어교육자협의회(ACTFL) 연례 콘퍼런스에 참가해, 한국어 교육 단체·한국유학 관련 기관의 부스를 한 구역에 모은 「한국관」을 운영했다고 23일 밝혔다.

* 워싱턴, 뉴욕,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휴스턴, LA

○ ACTFL은 1967년 설립된 미국 외국어교육 분야 최대 규모의 전문 단체로, 초·중등 교사와 대학교수, 교육행정가 등 1만3천 명 이상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올해 행사에는 6,000명 이상의 교육자가 참석하였고 600개 이상의 발표·토론 세션이 운영되었다.

< 전미외국어교육자협의회(ACTFL) 개요 >

- **(공식 명칭)** American Council on the Teaching of Foreign Languages
- **(설립)** 1967년, 본부는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Alexandria)
- **(목적)** 미국 대표 외국어 교육 전문 단체로서 외국어 교육의 질 향상, 다국어 구사 인재 양성, 효과적 교수·평가·교육과정 개발 지원 및 외국어 학습의 사회·경제·문화적 가치 홍보
- **(구성)** 초·중등 교사, 대학교수, 연구자, 교육 행정가 등 약1만3천 명 이상
- **(주요활동)** ACTFL Proficiency Guidelines(숙련도 지침서) 발표, 교사 전문성 인증 프로그램 운영, 연례 학술대회 및 세미나 개최, 학술지 발간
- **(한국어 평가 연계)** OPI(말하기 평가), WPT(쓰기 평가), AAPPL(학교용 통합 평가) 등에 한국어가 정식 평가 언어로 포함

□ 올해 가장 큰 변화는 '통합'이다. 지난해 뉴올리언스에서 LA한국교육원이 첫 단독 부스를 운영한 이후 올해에는 'Korean Education & Study in Korea Integrated Pavilion (한국어교육·한국유학 통합 한국관)'을 콘셉트로 주요 한국어 교육 및 교사 단체 등의 부스가 한 구역에 모여 하나의 큰 한국관을 이루었다.

- 특히 한국교육원 공동 부스에는 약 300명의 방문객이 찾아와 한국어 교육과 한국유학에 관한 상담을 받았으며, 한국어 교육 관련 기관 12개가 참여한 전체 Korea Pavilion에는 사흘간 약 1,500명의 방문객이 방문하는 등 큰 관심을 모았다.
- 이는 한국어 교육기관들이 개별적으로 홍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한국어 교육 관련 기관들이 한 공간에서 협력하고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어 교육 및 교사 지원, 한국 문화 프로그램, 한국 유학 정보를 한자리에서 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문객들의 정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 특히, 북미 한국교육원들의 협력과 ACTFL 주최 측의 한국어 관련 부스 통합 배치가 어우러져 한국어 교육기관들의 공동체적 협력과 한국어의 높아진 위상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 * 부스 구성 >

- **(한국어 교육 구역 : Korean Language Education Zone)** 미주 8개 한국교육원 소개, 미국 내 한국어 채택교 현황과 성장 추세, 교재·교사 연수·문화체험 프로그램·한국문화 동아리 및 방과후 지원 등 해외 한국어 교육 지원 사업 안내
- **(한국유학 정보 구역 : Study in Korea Info Center Zone)**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경쟁력과 한국 유학의 장점, 미국 학생 대상 한국 유학 장학 프로그램, LA한국유학지원센터, 2024·2025 한국유학박람회 참가 대학 프로그램 안내

□ LA한국교육원은 방문객 유형에 따라 한국어 교사에게는 커리큘럼·교재·연수 지원을, 타 언어 교사에게는 한국어 개설 절차와 학생 수요를, 교육 행정가에게는 프로그램 지속 가능성과 정책·예산 연계 사례를, 대입 카운슬러에게는 한국 유학과 장학금 정보를 중심으로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였다.

- 특히, 현장에서 만난 최수진 Democracy Prep Harlem High School 한국어반 교사는 "한국어 관련 기관들이 협력해 합동으로 부스를 운영하니 방문객 입장에서도 한국어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쉽게 찾을 수 있어 편리하고 좋았다"며, "한국의 여러 기관이 한목소리로 협력하는 모습을 통해 한국어 교육의 위상과 한국어 공동체의 힘을 확인할 수 있어 더욱 뜻 깊었다"고 말했다.

- 또한, Tina Wang La Salle High School Foreign Language Director는 "우리 학교 학생들의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 방과후 한국어반을 개설했다"며, "이번 ACTFL은 한국유학과 한국문화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얻고, 한국어 교육 관련 기관들과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어 교육 관계자뿐 아니라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등 타 언어 교사와 교육행정가, 대입 카운슬러들의 방문도 이어졌다. 이를 통해 K-콘텐츠를 계기로 형성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실제 한국어 교육 수요와 한국유학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특히, 올해 콘퍼런스에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외국어 교수·학습 방법뿐 아니라, 언어교육에서 대인 간 의사소통 능력(Interpersonal Skills)의 중요성과 이를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적 접근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AI 등 기술의 발전 속에서도 학습자 간 상호작용과 실제 의사소통을 통한 언어 활용 능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등,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외국어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

□ 한편, 이번 콘퍼런스 기간 중 한국교육원장들은 2027년 1월부터 ACTFL 회장을 맡게 될 브랜든 로크(Brandon Todd Locke) 차기 회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로크 차기 회장은 미국 알래스카주 앵커리지 교육구에서 언어 담당관으로 재직 중이다.

- 이용욱 시애틀한국교육원장은 "ACTFL 차기 회장과 직접 만나 미국 학교 현장의 한국어 교육 현황과 지원 방안을 이야기할 수 있어 뜻 깊었다"며, "이번 만남을 계기로 ACTFL과의 협력 관계를 넓혀 한국어 채택교 확대와 한국어 교육 저변 확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이병승 LA한국교육원 원장은 "한국어 교육 단체·기관과 함께 한국관을 꾸려 한국어 교육부터 한국 유학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수요가 한국어반 개설과 교사 지원, 한국 유학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LA한국교육원은 이번 상담 내용과 미국 내 외국어 교육 동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한국어반 개설 지원·교사 연수·한국유학박람회 등 후속 사업과 지속적으로 연계해 나감으로써 미국 내 한국어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한국어의 위상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붙임 : 사진 4부. 끝.

로스앤젤레스한국교육원 680 Wilshire Place #200, LA, CA 90005	담당	부원장 김진홍 ☎ 213-386-3112 (www.kecla.org)

붙임	2026 ACTFL「한국관」 운영 주요 모습

○ **(사진 1~2) 2026 ACTFL「한국관」 운영 모습**





○ **(사진3)** 2026「한국관」공동 운영 기관 대표들과 ACTFL 핵심 운영진들 **(좌측에서 네 번째 : 2027년 ACTFL 회장 브랜든 로크(Brandon Todd Locke))**



○ **(사진4)**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외국어 교수·학습 방법과 함께 대인 간 의사소통 능력(Interpersonal Skills)의 중요성 및 향상을 위한 교육적 접근에 대한 논의 활발

